

보도시점 배포시

배포 2026. 6. 11.(목) 14:00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미래 성장산업 및 경제안보·공급망 등 논의

-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기술·산업 혁신전략 논의
- 경제안보·공급망 관련 국제규범 설계 등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 필요

□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6.11.(목) 「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 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 - (분과) ①혁신성장반*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- * (혁신성장반, 8명)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(분과장), 구자현 KDI 연구실장,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,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,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,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, 최윤희 산업研 선임연구위원,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

□ 금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미래 기술·산업 혁신과 경제안보·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□ 미래 기술·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,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
○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기술·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
- **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**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,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제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 - **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**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시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고,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.
 - **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**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·정책지원 등이 혁신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.
 - **경제안보·공급망과**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규범과 표준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-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	책임자	과 장	신명석 (044-214-1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z56543@korea.kr)

